

아무도 몰랐던 **미래** 발명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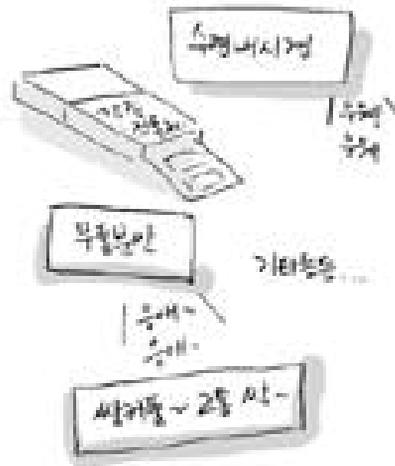
과연 마취제 없이
수술이 가능할까??



과거에는 이러한 마취기술이 없었기에
모든 수술은 큰 고통과 두려움에
기원하는 마약이나 술을 사용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고통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없을 것이며



오늘날 고통을 통제는 하여
인에게는 그야말로 고통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많은 약과 의료기구가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월 1일 유리의 이
코너는 고통과 두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취제는 19세기 말경 화학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면 독일
영국인 험프리 데이비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데이비는 19세에 외과의사다
영국사의 군수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의학보다 화학분야에
관심을 더 갖기 시작했다.



데이비는 1928년 영국 맨체스터의
한 연구소에서 여러가지 기체의 성질을
연구하면서 중 이산화질소라는 기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데이비는 이 기체를 쥐와도-개도
말게 하였더니 그들은 웃고 떠들며
흔들 추기도 하였다.



결국 이 기체에 마취성분이
있는것으로 확신이 되었고
최후의 마취제로 쓰이게 되었다.
이를 제1로 마취제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